

## “어려운 국가통계, 대화하듯 쉽게”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포털 검색·활용 시범서비스 개시

- 국가데이터처, 데이터 연결기술(MCP)을 적용, 지능형 통계 도우미 구현
- 26만여 개 통계표를 일상언어로 검색부터 융합·분석까지 한 번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국민이 일상언어로 원하는 통계를 질의하면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통계표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서비스」를 개발하여 7월 8일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번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기능에 구현한 ‘인공지능 · 데이터 연결 기술’(MCP)은 일상언어 질의와 통계표를 연결하는 기술로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1,36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와 26만여 개 통계표를 상용 인공지능(AI) 기능에 접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구현하는 방식이다.

#### [ 인공지능 · 데이터 연결기술(MCP, Model Context Protocol) ]



· 인공지능(AI)이 외부 데이터(통계자료 등)와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통계를 직접 검색하고 여러 통계표를 비교·가공·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상언어 질의만으로 원하는 통계를 손쉽게 찾거나 분석하고 통계표를 만들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서비스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 [ '인공지능(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예시 ]

### < 통계표 생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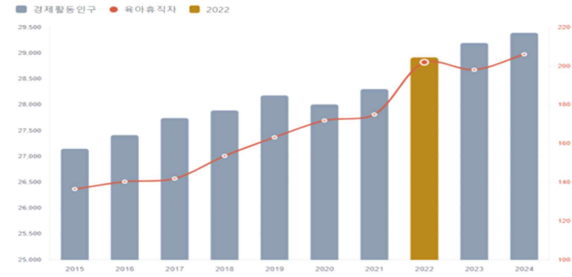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와 육아휴직자 수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주세요”

| 연도   | 경제활동인구 (천명) | 육아휴직자 (천명) | 1만명당 육아휴직자 (명) |
|------|-------------|------------|----------------|
| 2015 | 27,153.4    | 136.6      | 50.3           |
| 2016 | 27,418.3    | 140.4      | 51.2           |
| 2017 | 27,747.7    | 142.0      | 51.2           |
| 2018 | 27,895.3    | 153.7      | 55.1           |
| 2019 | 28,186.2    | 163.3      | 57.9           |
| 2020 | 28,012.3    | 172.0      | 61.4           |
| 2021 | 28,310.0    | 175.1      | 61.9           |
| 2022 | 28,921.6    | 202.1      | 69.9           |
| 2023 | 29,203.0    | 198.2      | 67.9           |
| 2024 | 29,398.5    | 206.2      | 70.1           |

통계 2종(경제활동인구조사, 육아휴직통계)의 자료(KOSIS자료)를 비교하는 **통계표를 만들어 제공**

### < 차트 및 분석 결과 >

“2022년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합」 (DT\_1DA7001), 「육아휴직통계: 전체 육아휴직자(시작일 기준)」 (DT\_CC2024A001)  
경제활동인구 · 육아휴직자

2022년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건 그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 개편의 영향이 핵심입니다.

먼저 수치부터 보면:

- 전체 육아휴직자는 2021년 175,110명에서 2022년 202,093명으로 26,983명(+15.4%) 증가해,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폭의 연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아빠(부) 육아휴직자가 42,197명에서 54,565명으로 12,368명(+29.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 엄마(모) 육아휴직자도 132,913명에서 147,528명으로 14,615명(+11.0%) 증가했습니다.
- 그 결과 아빠 비중이 2021년 24.1%에서 2022년 27.0%로 올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전체 증가를 견인한 모습입니다.

증가 배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으로 정리됩니다.

-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입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가 동시에 써도 적용돼 아빠의 휴직을 강하게 유인했습니다. Moef

**차트와 분석 결과도 정확한 통계자료(KOSIS자료) 기반으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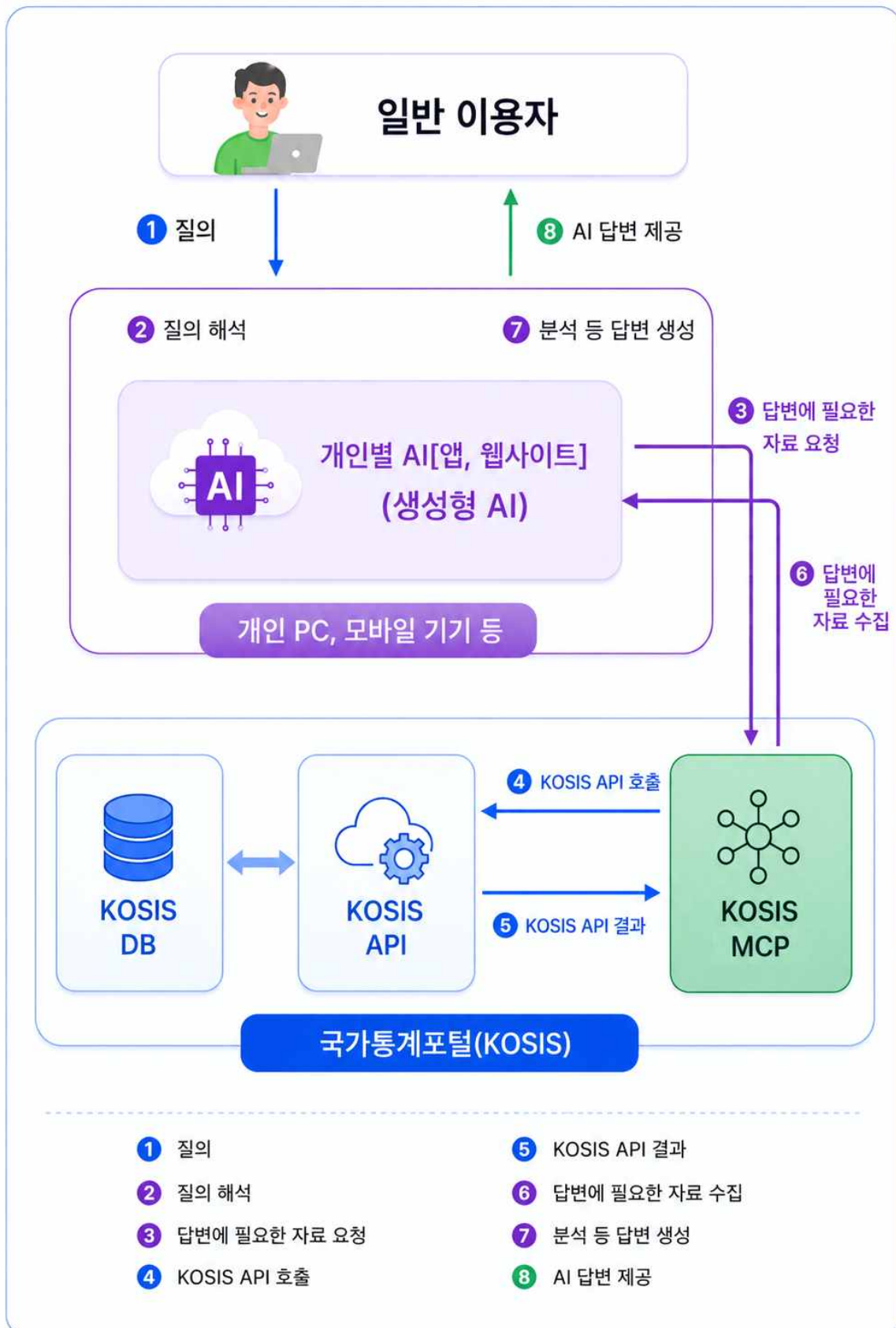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인공지능(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는 이용자가 복잡한 통계 검색 과정 없이 일상언어 질의만으로 필요한 통계를 찾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계서비스”이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친화적 속성정보(메타데이터) 구축과 통계 특화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바탕으로 국가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생산·관리·활용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통계서비스국<br>통계서비스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김현기 (042-481-2377)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희훈 (042-481-2378) |

## 붙임1

##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운영 체계



## 붙임2 서비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KOSIS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 서비스 공지 사항 및 이용 방법 바로가기

| 접속 URL                                                                                                                              | 접속 QR코드                                                                            |
|-------------------------------------------------------------------------------------------------------------------------------------|------------------------------------------------------------------------------------|
| <a href="https://kosis.kr/serviceInfo/noticeDetail.do?boardIdx=2553">https://kosis.kr/serviceInfo/noticeDetail.do?boardIdx=2553</a> |  |

☐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며, KOSIS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 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상용 AI를 활용하므로, 이용하는 AI 모델의 종류 및 운영환경에 따라 응답 속도와 결과 표현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시범서비스로 운영되며, 서비스 안정화 및 기능 개선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의 통계 분석·해석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참고용이니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3

##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예시

❗ 본 예시들은 인공지능(AI) 모델에 따라 생성되는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1

### 통계표 생성(월별 통계자료)

#### ①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MCP를 활용한 API 연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아수를 알려줘

생각해보기: 2025년 월별 출생아수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출생아 수 관련 통계표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조회해 볼게요!

🔍 Found tools

결과

K Kosis local search

결과

연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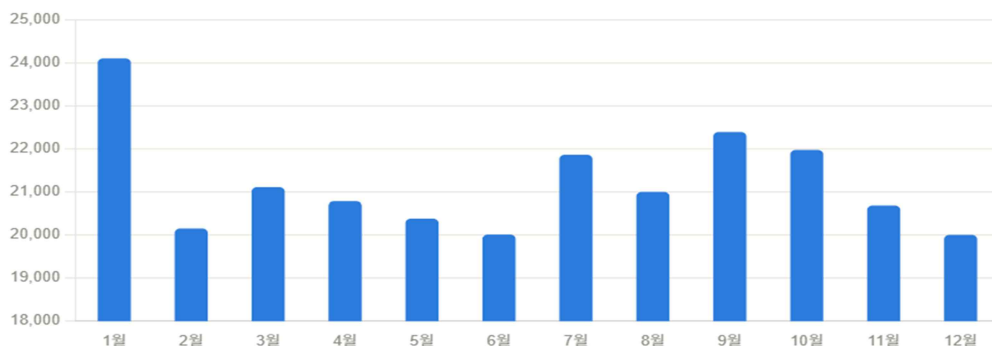
254,457명

월 최고 (1월)

24,099명

월 최저 (12월)

20,003명



-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월별 출생아수(인구동향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 출생아수(명) |
|---------|---------|
| 2025.01 | 24,099  |
| 2025.02 | 20,151  |
| 2025.03 | 21,112  |
| 2025.04 | 20,787  |
| 2025.05 | 20,379  |
| 2025.06 | 20,011  |
| 2025.07 | 21,863  |
| 2025.08 | 21,000  |
| 2025.09 | 22,391  |
| 2025.10 | 21,977  |
| 2025.11 | 20,684  |
| 2025.12 | 20,003  |

**MCP를 활용한 KOSIS API 연계를 통해  
정확한 값을 가진 통계표 생성**

## ② 일반 AI 서비스

대한민국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아수 알려줘

◆ 대한민국 통계청(KOSTAT)에서 발표한 **2025년 연간 출생아 수(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총 출생아 수는 약 **25만 4,5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약 23만 8,300명)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이며,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반등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월별 출생아 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치 기준).

2025년 월별 출생아 수 (단위: 명)

정확한 수치가 아닌 근사값으로 답변

| 월     | 출생아 수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
| 1월    | 약 23,400 | +6.1%        |
| 2월    | 약 21,200 | +7.4%        |
| 3월    | 약 22,800 | +4.5%        |
| 4월    | 약 21,500 | +12.1%       |
| 5월    | 약 21,000 | +8.1%        |
| 6월    | 약 19,800 | +8.5%        |
| 7월    | 약 20,800 | +1.2%        |
| 8월    | 약 21,200 | +6.2%        |
| 9월    | 약 21,600 | +5.3%        |
| 10월   | 약 21,300 | +10.1%       |
| 11월   | 약 19,800 | +11.2%       |
| 12월   | 20,003   | +9.6%        |
| 연간 합계 | 254,457  | +6.8%        |

## 예시2

## 통계 비교(분기별)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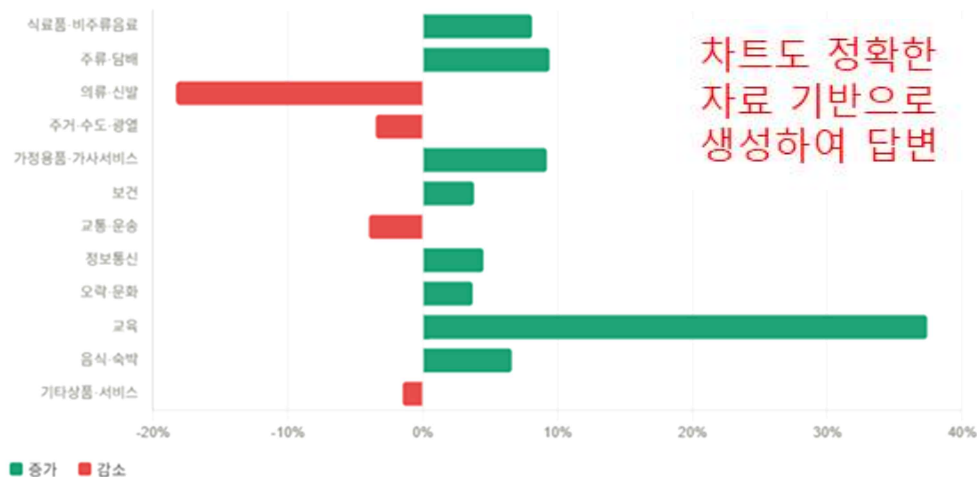
가계동향조사에서 2025년 2분기 대비 2025년 3분기의 소비 데이터를 표로 보여줘

비목별 소비지출 비교 (가구당 월평균, 원)

| 비목             | 2025 2분기  | 2025 3분기  | 증감액      | 증감률    |
|----------------|-----------|-----------|----------|--------|
| 소비지출 (합계)      | 2,835,858 | 2,944,058 | +108,200 | +3.8%  |
| 01. 식료품·비주류음료  | 422,727   | 457,028   | +34,301  | +8.1%  |
| 02. 주류·담배      | 36,933    | 40,401    | +3,468   | +9.4%  |
| 03. 의류·신발      | 144,860   | 118,316   | -26,544  | -18.3% |
| 04. 주거·수도·광열   | 346,534   | 334,401   | -12,133  | -3.5%  |
| 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114,329   | 124,826   | +10,497  | +9.2%  |
| 06. 보건         | 220,225   | 228,505   | +8,280   | +3.8%  |
| 07. 교통·운송      | 339,925   | 326,246   | -13,679  | -4.0%  |
| 08. 정보통신       | 160,775   | 167,994   | +7,219   | +4.5%  |
| 09. 오락·문화      | 170,535   | 176,795   | +6,260   | +3.7%  |
| 10. 교육         | 172,576   | 237,037   | +64,461  | +37.4% |
| 11. 음식·숙박      | 456,591   | 486,501   | +29,910  | +6.6%  |
| 12. 기타상품·서비스   | 249,846   | 246,008   | -3,838   | -1.5%  |

KOSIS API 연계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증감률 등 분석수치를 포함한 통계표 생성

비목별 증감률 (%)



위 표와 차트는 KOSIS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전체가구, 가구당 월평균 기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아래에 주요 변화와 원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 ⚠ 시범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 기반 시범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답변에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통계 분석·해석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참고용이니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소비지출: 283.6만원 → 294.4만원 (+3.8%)

전반적으로 소비가 소폭 늘었는데, 비목별로 원인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 크게 증가한 항목

교육(+37.4%)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2분기(17.3만원)에서 3분기(23.7만원)로 급증했는데, 이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주로 1학기(1분기)와 2학기(3분기)에 납부되기 때문에 정규교육비가 0.6만원→6.8만원으로 급증하며 전체 교육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꺼졌다 치솟는 패턴은 매년 반복됩니다.

음식·숙박(+6.6%)은 여름 휴가철(7~9월)의 외식·숙박 수요 증가가 원인입니다. 특히 숙박비가 1.7만원→2.6만원으로 58% 급증했고, 식사비도 44.0만원→4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식료품·비주류음료(+8.1%)는 육류(5.6만→6.2만원), 신선수산물, 과일(4.3만→5.4만원) 등 신선식품 지출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여름철 수급 여건과 가격 상승, 계절 식품 소비 증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담배(+9.4%)는 여름 야외 활동과 모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계절 패턴입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9.2%)도 눈에 띄는데, 가전 및 가정용기기 지출이 3.0만원→3.8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여름 가전 성수기 효과).

#### 크게 감소한 항목

의류·신발(-18.3%)은 봄 시즌(2분기)에 집중되는 의류 교체 수요가 일단락된 전형적인 계절 효과입니다. 직물 및 외의 지출이 10.1만원→8.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주거·수도·광열(-3.5%)은 여름철 난방·연료비가 낮아지면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연료비 항목이 9.5만원→8.3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교통·운송(-4.0%)은 자동차 구입 지출이 10.5만원→8.1만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큼니다. 자동차 구입은 변동성이 큰 항목이라 분기별 등락이 잦습니다.

#### 종합 해석

2025년 2→3분기의 소비 변화는 대부분 **계절적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교육비의 학기 납부 패턴, 여름 휴가·외식 수요 증가, 난방비 감소, 봄 의류 수요 마무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소득(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소비보다 크게 늘면서 평균소비성향은 70.5%→67.2%로 오히려 하락해, 경기 변동이나 특별한 외부 충격보다는 한국 가계 소비의 분기별 계절성이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KOSIS 바로가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분석결과도 정확한 자료 기반으로 생성하여 답변**

### 예시3

### 이종(異種) 통계 결합 및 분석

1인가구와 신혼부부수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고  
분석해줘

1인가구 (2024)

**804만**

2015년 대비 +55% 증가

신혼부부 (2024)

**95만 쌍**

2015년 대비 -35% 감소

1인가구/신혼부부 비율  
(2024)

**8.5배**

2015년에는 3.5배였음

연평균 증감 (9년)

**+5.0% / -4.7%**

1인가구↑ vs 신혼부부↓

연도별 비교표

| 연도   | 1인가구 (가구) | 전년비   | 신혼부부 (쌍)  | 전년비   | 1인가구/신혼부부 |
|------|-----------|-------|-----------|-------|-----------|
| 2015 | 5,203,440 | —     | 1,471,647 | —     | 3.5배      |
| 2016 | 5,397,615 | +3.7% | 1,436,948 | -2.4% | 3.8배      |
| 2017 | 5,618,677 | +4.1% | 1,379,766 | -4.0% | 4.1배      |
| 2018 | 5,848,594 | +4.1% | 1,322,406 | -4.2% | 4.4배      |
| 2019 | 6,147,516 | +5.1% | 1,260,117 | -4.7% | 4.9배      |
| 2020 | 6,643,354 | +8.1% | 1,183,750 | -6.1% | 5.6배      |
| 2021 | 7,165,788 | +7.9% | 1,101,455 | -7.0% | 6.5배      |
| 2022 | 7,502,350 | +4.7% | 1,032,253 | -6.3% | 7.3배      |
| 2023 | 7,829,035 | +4.4% | 974,452   | -5.6% | 8.0배      |
| 2024 | 8,044,948 | +2.8% | 952,026   | -2.3% | 8.5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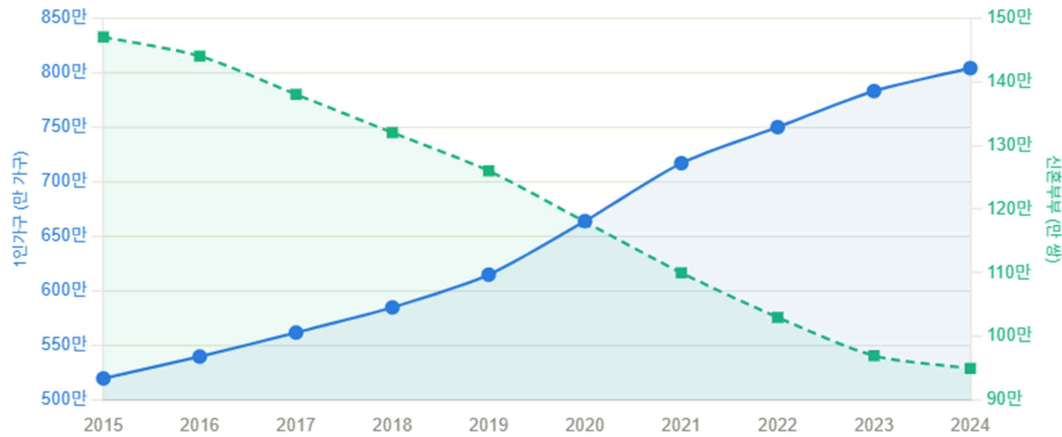
KOSIS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인구총조사), 신혼부부(신혼부부통계) 등

서로 다른 통계를 연계하여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를 생성

추이 비교 차트

■ 1인가구 (만 가구, 좌축) ■ 신혼부부 (만 쌍, 우축)



### 분석 요약

- KOSIS 데이터(2015~2024)를 바탕으로 보면 두 지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차트에서 2019~2020년 사이에 교차하는 전형적인 X자 형태가 나타납니다.
- 1인가구는 지속적 급증 흐름으로 2015년 520만에서 2024년 804만 가구로 9년간 +55% 증가했고, 연평균 약 +5.0% 성장률에 청년층 만혼·비혼과 고령층 단독거주 증가가 동시에 작용해 '혼자 사는 생애주기'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뚜렷한 감소 흐름으로 2015년 147만 쌍에서 2024년 95만 쌍으로 -35% 줄었으며, 연평균 -4.7%로 감소하다가 2024년 전년비 -2.3%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점이 최근의 변화입니다.
- 두 지표의 비율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2015년 3.5배였던 격차가 2024년 8.5배로 2배 이상 벌어진 것은 단순한 혼인 감소가 아니라 결혼·다인가구 중심에서 1인가구 중심으로의 가구구조 근본 재편을 반영합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인가구 급증에 맞춘 주거·복지·금융 서비스 재설계가 시급하며, 동시에 신혼부부 수는 출산율의 선행 지표이므로 2023년 이후 혼인 반등이 신혼부부 감소세 둔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지속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좌축(1인가구)과 우축(신혼부부)의 스케일이 다르므로 두 선의 기울기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 축의 방향과 수치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가구의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인구총조사, DT\_1JC1511), KOSIS 바로가기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신혼부부 특성별 혼인종류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통계, DT\_1NW1003), KOSIS 바로가기

차트와 분석도 KOSIS의 정확한 자료로 작성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언제가 제일 많았는지 알려줘.

#### ⚠ 시범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 기반 시범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답변에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통계 분석·해석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참고용이니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2016~2025년) 사교육비 총액(초중고 전체, 단위 억원)을 확인했습니다.

**최고는 2024년으로 약 29조 1,91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약 18조 61억 원)보다 약 62% 늘어난 규모입니다.

**KOSIS 자료에서 찾아 답을 알려주고**

흐름을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늘다가 코로나가 닥친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고(약 19조 3,532억 원), 이후 2021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약 27조 5,351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꺾인 모습입니다.

연도별 총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사교육비 총액                    |
|-------------|----------------------------|
| 2016        | 약 18조 61억 원                |
| 2017        | 약 18조 6,703억 원             |
| 2018        | 약 19조 4,852억 원             |
| 2019        | 약 20조 9,970억 원             |
| 2020        | 약 19조 3,532억 원             |
| 2021        | 약 23조 4,158억 원             |
| 2022        | 약 25조 9,538억 원             |
| 2023        | 약 27조 1,144억 원             |
| <b>2024</b> | <b>약 29조 1,919억 원 (최고)</b> |
| 2025        | 약 27조 5,351억 원             |

**관련 통계수치와  
분석 결과를 제공**

참고로 이 총액은 학생 수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 1인당 사교육비로 보면 추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인당 기준 추이가 궁금하시면 그것도 찾아드릴게요.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DT\_1PE003)

고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가 100만원을 넘은 것은 언제였고, 어느 지역이야?

#### ⚠ 시범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 기반 시범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답변에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통계 분석·해석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참고용이니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을 넘은 것은 **참여학생 기준(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평균낸 값)**으로 서울특별시가 **2024년에** 처음입니다.

- 서울 고등학교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24년 약 102.9만 원**으로 처음 100만 원 돌파, **2025년에는 약 105.4만 원**으로 더 올랐습니다.
- 100만 원을 넘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가 2025년 기준 약 84.8만 원으로, 아직 100만 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흔히 인용되는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기준으로는 아직 100만 원을 넘은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기 때문에 값이 낮아져서, 가장 높은 서울도 2024년 약 76.9만 원, 2025년 약 76.7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돌파'는 참여학생 기준일 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KOSIS 자료에서 찾아 답을 제공**

정리하면 **언제: 2024년(참여학생 기준 첫 돌파), 어느 지역: 서울특별시**입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학교급 및 시도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DT\_1PE109) 및 학교급 및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DT\_1PE10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률에 대한 산식을  
알고 싶어

$f_x$  실업률 정의 및 산식

$$\text{실업률(\%)}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text{실업자} \div (\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 실업자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주 18시간 이상, 일시휴직자 포함)

실업자 수입 있는 일 없이,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고, 즉시 취업 가능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등) — 실업률 산식에서 제외

🔗 고용보조지표 산식 (실업률 보완 지표)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는 ILO 권고(2013년)에 따라 2014년 5월부터 공표. 실업률과 다른 개념으로 고용시장 분석용 참고자료로 제공됩니다.

📖 조사 기본 정보

조사 기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조사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약 36,000가구)

조사 주기 매월 (15일 포함 1주 7일간)

공표 시기 조사 기준월 익월

최초 작성 1963년 (1957년 노동력조사 기원)

KOSIS 통계표 [DT 1DA7104S 바로가기](#)

**KOSIS의 설명자료를 가져와 답변**

최근 전국 실업률 동향 (2025.11 ~ 2026.04)

2.2%

2025년 11월

4.1%

2025년 12월

4.1%

2026년 1월

3.4%

2026년 2월

3.0%

2026년 3월

2.9%

2026년 4월 (최신)



#### ⚠ 시범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 기반 시범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답변에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통계 분석·해석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참고용이니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률 산식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

핵심은 분모가 \*\*전체 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라는 점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분모에도 분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실업자가 늘면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요 용어

- 실업자 요건 3가지: ①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②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으며 ③ 즉시 취업 가능한자 (구직기간 기준은 1999년부터 1주→4주로 변경)
- 비경제활동인구: 학생, 전업주부, 구직단념자 등 — 실업률 산식에서 제외됨

#### 고용보조지표

실업률만으로는 고용시장을 다 설명하지 못해, 2014년부터 ILO 권고에 따라 보조지표 1~3을 함께 제공합니다.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더 일하고 싶은 단시간 취업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등)까지 포함하므로 실업률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DT\_1DA7104S

설명정보를 요약 및 분석하여 답변